

무선인터넷 이용 영상보안 솔루션 개발



3R(대표 장성익 <http://www.3r.co.kr>)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영상보안 솔루션인 '비알 에스모바일(BRS-Mobile)'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서 촬영한 영상을 PDA 등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영상을 확인하는 기능 이외에 실시간으로 채널전환이나 화면확대, 카메라 제어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동중에도 모바일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초당 20프레임의 실시간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한수 3R 마케팅본부장은 "이 솔루션은 MPEG4 기술을 이용해 동영상 전송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으로 매장 확인, 유치원 관찰, 물류나 유통 현장 확인 등에 유용하다"며 "향후 휴대폰에서도 영상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음성통화 원천기술 개발



유무선 통합환경에서 광대역 음성신호를 현장감 있는 디지털신호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고품질 동기식 음성코덱 원천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http://www.etri.re.kr>) 네트워크 핵심기술연구부(부장 김봉태)는 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과 함께 정보통신부 선도기반 국책기술사업으로 고품질 음성통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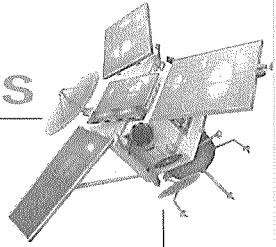
이 음성코덱은 기존 기술과 달리 음성의 명료성과 자연성 등 현장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50Hz~7kHz대의 광대역 음성신호를 압축처리할 수 있는 데다 광대역 음성신호의 특성을 고려한 가변코드(VBR) 기반으로 설계돼 음원과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모드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 기술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동기식 이동통신(3GPP)의 차세대 고품질 음성코덱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이 3GPP2의 차세대 고품질 음성코덱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단말 및 음성서비스 장치의 생산을 위해 국내 기업이 부담해온 기술료 지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핵심 표준 및 지적재산권 확보로 인해 세계적으로 2억개 이상의 단말기에 대해 대당 1달러만 받아도 연간 기술료 수입 규모가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국내 유무선통신사업자·산업체·학과와 공동으로 국내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경쟁기업들과도 기술적·전략적 제휴를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3GPP2 차세대 고품질 코덱 국제표준위원회(TSG-C1.1)는 내년에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ETRI를 비롯해 퀄컴·노키아·모토로라·마인드스피드 등 전세계 5개 기관 및 기업의 코덱 표준화 제안을 심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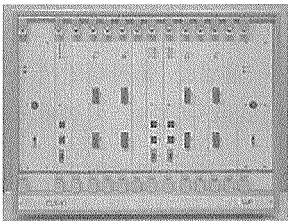


김봉태 박사는 “차세대 통신망 전화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통신사업자·정보통신 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IMT2000)은 국제표준에 의한 2Mbps급의 데이터 전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단일 국제표준화에 실패해 유럽과 일본 중심의 비동기식 3GPP와 미국이 주도하는 동기식 3GPP2로 시장이 양분돼 있다.

차세대 통합랜 시스템 개발

ETRI



국내의 지점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무실을 단일 구내전화나 사내통신망으로 통합, 구축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랜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P응용기술팀(팀장 이규호 박사)은 IP 기반의 차세대 통합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첨단 인터넷전화기술로 구내전화망과 구내데이터망을 통합, 라우터

와 서버만으로 전화와 컴퓨터를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개발돼 인터넷을 구내망처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전세계에 퍼져 있는 지점이나 사무실들을 한 건물에 있는 것처럼 단일한 구내통신망으로 묶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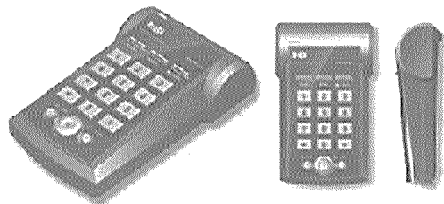
또 세계 최초로 독자개발한 프로그래머블 IP 스위치 제어 표준프로토콜(eGSMF)을 채택, 앞으로 등장할 모든 형태의 인터넷전화도 수용이 가능하다.

기존 인터넷전화는 끊김현상이나 잡음 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시스템은 서버와 라우터간 연계 강화로 고품질의 통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통합메신저 등 다양한 신종 인터넷전화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규호 IP응용기술팀장은 “현재 IP 기반의 차세대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무선 All-IP망이나 음성서비스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의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며 “IP 기반의 차세대 통합랜시장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이 구축된 셈”이라고 말했다.

녹취용 전화기 개발

KBI



광모듈 전문업체 KBI(대표 허남기 <http://www.kbiltd.co.kr>)는 최근 디지털 녹취용 전화기 '탐보이스'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통화내용을 사용자 PC에서 압축녹음,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서버에 저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 전화통화 녹취장비의 운영에 필요했던 전화라인 태핑, 녹취카드, 녹취서버 등의 장비가 필요없어 운영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MPEG4 성능의 파일압축·원격녹음·원격관리·원격청취·원격시스템관리 등이 가능하며, LAN·WAN·VPN·ADSL·VDSL·DSL 등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도 지원한다.

이 회사 임택 이사는 "내년 디지털 녹취용 전화기 시장을 1000억원 규모로 예상, 내년 2월부터 월 2000~3000대씩 생산할 계획"이라며 "현재 콜센터·증권·보험·AS센터·은행·홈쇼핑 등의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종의 트랜스포머 개발

국제전자

국제전자(대표 조재복 <http://www.eckorea.net>)는 최근 SMT용 인버터 트랜스포머 등 총 10여종의 트랜스포머를 개발했다.

STM용 인버터 트랜스포머는 두께 2mm에 가로·세로가 각각 10mm에 불과한 제품으로 그동안 전량 일본에서 수입돼 온 제품이다. 이 제품

은 PDA·TFT LCD 등 박막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며, 최근 이들 세트제품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플레나 트랜스포머(적층 트랜스포머)는 코일을 사용하지 않아 두께가 10mm에 불과하지만 400W급 기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스마트카드 기반 원카드 솔루션 개발

노틸러스호성

'지갑 속에 딱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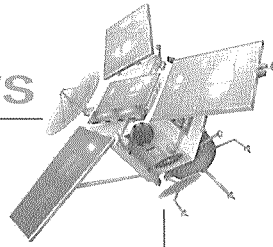
노틸러스호성(대표 최병인 <http://www.nautilus.hyosung.com>)이 발급기관 통합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스마트카드 기반 원카드(One Card)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한장의 카드로 신용·직불, 전자화폐,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존 원카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카드 발급기관도 하나의 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카드 솔루션의 등장으로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서 원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신용, 현금, 증권, 백화점 카드 등에 담긴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이식·사용할 수 있게 돼 지갑이 매우 가벼워질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나 브랜드카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을 하나의 카드에 담아 사용하면 포인트 관리가 용이해진다.

이밖에 은행 통장을 대체해 영업점 창구 직원의 업무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전자통장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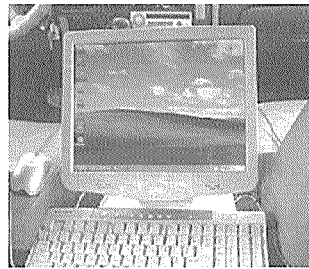
비스와 지로용지의 납부자 번호 없이도 공과금 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과금 수납 서비스가 가능하다.

노틸러스호성은 이 솔루션이 상용화되기 위해 IC칩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의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신형 자동화기기(ATM)에는 대부분 IC카드 리더가 장착돼 있다며 초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IC카드 기능이 내장된 ATM에서는 고객이 직접 기존 카드의 고객정보를 이식할 수도 있다.

노틸러스호성은 원카드 솔루션을 특허 출원하고 카드사 등과 사업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용 전용PC 개발

디지털네트웍스코리아



디지털네트웍스코리아(대표 송혁수 <http://www.korea-net.com>)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통신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차량용 컴퓨터 '신클(Thincle)'을 개발했다.

신클은 1DIN(178×178×49mm) 크기로 일반 중 소형차의 오디오데크에 손쉽게 탑재할 수 있다. 또한 펜티엄3급 성능을 발휘하는 VIA C800을 CPU로 채택했으며 산업용 컴퓨터나 노트북PC에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진동과 온도변화가 심한 차량 내 환경에 맞도록 설계됐다.

기존 차량용PC와 달리 윈도우CE, 리눅스는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운영체제(OS)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20Gb급 노트북PC용 하드디스크를 탑재했기 때문에 MS오피스 시리즈 등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신클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본체는 GPS 기능과 음성을 통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본체에 내장된

시스템보호 및 성능유지 모듈인 SPM 개발

디지털네트

디지털네트(대표 이재한 <http://www.digitalonnet.com>)은 시스템보호 및 시스템성능 유지 모듈인 'SPM(System Protection Module)'을 개발했다.

SPM은 통신라인에 낙뢰·상용전원의 접촉과 같은 충격이 있을 때 이로부터 통신용시스템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해외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규격인 벨코어와 UL 규격에 맞게 설계됐으며 또 독립적인 내외장 모듈형태로 제작해 다양한 시스템에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SPM 적용대상시스템은 유무선통신시스템의 백본망이다.

DVD 플레이어를 통해 고품질의 영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위성인터넷 모뎀에 연결만 하면 주행중에도 400~800Kbps급 초고속 위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송혁수 사장은 “노트북PC나 태블릿PC는 차량에 탑재하기 어렵고 PDA는 컴퓨터를 대체하기에 용량과 처리능력이 너무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모바일 오피스 및 텔레매틱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PVR 외장형 하드디스크 출시

디지털앤디지털

디지털앤디지털(대표 이규택 <http://www.digital-digital.com>)이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에 녹화된 영상 데이터를 저장, 보관할 수 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개발,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일반 방송은 물론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DVD도 재생 및 디지털로 녹화,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된 영상물을 개인의 PC로 옮겨 재복사 및 편집 등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기능을 선보인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앤디지털의 PVR 제품인 ‘쥬빌로’ 시리즈에만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DVD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홍보용 DVD 등 상업용 제품이 아닌 데이터만 녹화할 수 있도록 됐다.

PVR에서의 디지털 녹화는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고품질의 영상과 음질에 변화가 없고, 외장형 기기로 복사된 영상물은 TV뿐 아니라 PC를 통해 얼마든지 재생 및 추가복사,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규택 사장은 “PVR는 TV를 보면서 생방송 일시정지, TV상의 편성정보 띄우기, 실시간 예약, 시리즈 녹화 등이 가능하며 PVR에 DVD플레이어가 장착된 경우 일반 방송의 디지털 녹화와 DVD미디어의 재생이라는 두 가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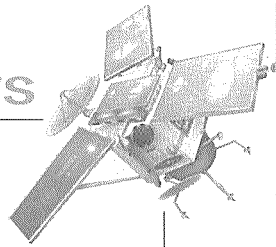
외장형 하드디스크는 20·40·60·80·120Gb 등이 있으며 가격은 26만원에서 39만원까지다.

세계 첫 54인치 TFT LCD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54인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의 개발에 성공, LG필립스가 갖고 있던 이 부문 세계 기록(52인치)을 또다시 경신했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지난 10월 46인치 TFT LCD를 개발한 지 2개월만에 세계 최대 크기인 54인치 TFT LCD를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빨강(R)·초록(G)·파랑(B) 화소가 가로 세로 각각 1920×1080개로 배열된 총 622만800개이며, 주사선이 1080개에 초당 60프레임을 구현, 고화질 동영상 표현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50인치급 이상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보다 화소수가 2배 많은 것이며, 기존 벽걸이TV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 규격(주사선 720개, 초당 60화면)보다도 한단계 높은 HDTV 최상위 규격이다.

특히 독자적인 광시야각 기술인 'PVA (Patterned Vertical Alignment)'를 적용, 상하 좌우 전방향 시야각을 170도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새로운 구동기술을 통해 동영상 표시능력을 나타내는 액정 응답속도를 12밀리초(1ms는 1000분의 1초) 이하로 줄였다.

회사측은 “지난 9월 가동에 들어간 5세대(1100×1250mm) 라인에서 이를 개발, 일반적으로 5세대 양산설비의 한계로 여겨지던 '52인치 벽'을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6세대 기판이 도입되지 않는 한 누구도 54인치 이상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30~40인치대 외에 54인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TV용 LCD 플라인업을 구축한 LCD업체로 자리매김해 앞으로 적극적인 LCDTV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사는 현재 15·17·22인치 등의 와이드(16대9) 제품을 양산중이며 32·40·46인치 등 대형제품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5년까지 노트북용에 이

어 모니터용·TV용·중소형 분야를 총망라한 LCD 전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아래 추가 5세대 라인(1100×1300mm)을 내년 말 가동하고 2005년 7세대 라인 가동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5000시간 보증 칩콘덴서 개발

삼성전자

삼영전자(대표 변동준 <http://www.samyoung.co.kr>)는 105도의 고온에서 5000시간 사용보증이 가능한 표면실장(SMD) 타입의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BLA 시리즈'를 첫 개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BLA 시리즈는 고온에서도 내성이 강한 전해액과 봉구재, 안정화된 화성 피막과 알루미늄박을 원자재로 사용해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정격전압은 4~35V, 정격용량은 4.7~100μF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측은 “이 제품은 LCD 모니터, PDP 모듈 회로, DVD플레이어, 자동차 전장품, 사무기기용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세트 제품에 적합하다”며 “보증시간 5000시간대의 칩 타입 알루미늄 전해콘덴서는 그동안 일본 니츠콘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돼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발진기 월100만개 양산체제 구축

삼화전기

삼화전기(대표 서갑수 <http://www.samwha.co.kr>)는 지난 5월부터 30억원 가량을 투입해 최근 세라믹 재질의 표면실장(SMD)형 수정발진기와 전압제어수정발진기(VCXO)의 생산능력을 종전보다 2.5배 증가시킨 월 100만개 체제를 갖췄다.

삼화전기는 이를 계기로 내년 초부터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에 장착되는 소형 수정발진기(5×3.2mm, 0.024cc)를 양산, 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는 이동통신단말기용 온도보상형수정발진기(VCTCXO·5×3.2mm, 0.024cc)도 개발, 양산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유럽·미국 등의 세트업체들과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판매전략을 수립중”이라며 “특히 해외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을 접목, 수정디바이스사업을 콘텐츠서와 함께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화전기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수정발진기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시작, 플라스틱 재질의 SMD 수정발진기를 생산하고 있다.

무선 DVD플레이어 개발

아이엔지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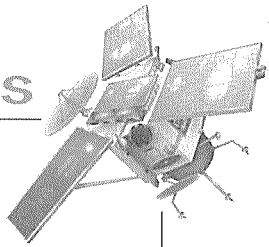
아이엔지테크(대표 박성수)가 음성뿐 아니라 영상까지 무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용 DVD 플레이어(모델명 ING-R-VI)를 개발했다.

아이엔지테크가 개발한 제품은 자동차 시가착에 연결해 전원만 공급하면 영상은 TV채널에서, 음향은 자동차 스피커를 통해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제품은 음향부분은 블루투스를, 영상부분은 63~53Mbps의 저주파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제까지 블루투스를 이용해 음성만을 무선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개발됐지만 음성과 영상까지 동시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차량내에서 지지분한 선 없이도 DVD플레이어를 장착,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기존 RF 송수신 시스템과 달리 별도의 수신부를 설치할 필요없이 TV튜너가 내장된 TV 및 FM라디오에서 직접 영상 및 음향수신이 가능해 편리하다. 또 설치가 간단해 누구나 제품을 구입해 장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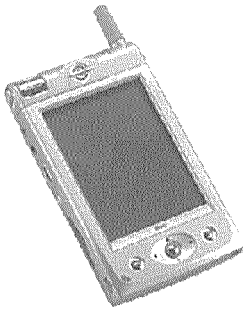
이 회사 박성수 사장은 “고급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된 TV와 DVD플레이어를 별도로 설치, 연결할 경우 대시보드를 해체하는 불편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은 물론 여행지에서 사용가능하므로 포터블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는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한 상태며 제품가격은 40만원대로 책정했다.



PDA사업 진출

아이엠알아이



모니터 전문업체인 아이엠알아이(대표 유완영 <http://www.imri.co.kr>)가 개인휴대단말기(PDA)사업에 진출한다.

아이엠알아이는 최근 이동전화단말기 기능이 내장된 무선PDA '레니오'를 개발하였다.

레니오는 cdma 1x 통신모듈과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를 내장, 무선인터넷을 통해 사진·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키보드·GPS 등 다양한 주변기기 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DIVX플레이어 개발

와이즈임베드

와이즈임베드(대표 조문석 <http://www.wisembed.com>)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플랫폼인 DIVX 포맷을 이용한 DIVX플레이어

(모델명 MBoX ip300)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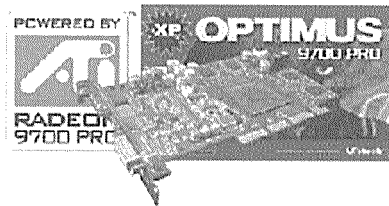
이 제품은 DVD, MP3플레이어 기능은 물론 PC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PC내에 저장된 파일을 TV화면에서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 DVD롬에서도 재생할 수 있다. 또 MPEG4 기반의 최신 압축기술 사용해 고화질 영상을 지원하고 원격 PC제어, 자동 업데이트 지원기능도 갖추고 있다.

와이즈임베드측은 “향후 홈네트워킹 시장이 본격 개막될 경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PC-to-TV)과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석 사장은 “새로운 멀티미디어 플랫폼인 이 제품을 앞으로 홈시어터 및 포스트PC 시장을 통해 적극 판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700프로 그래픽카드 자체 개발

유니텍전자



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는 ATI의 공식 파트너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9700프로 칩셋을 탑재한 그래픽카드인 '옵티머스 9700프로'를 자체 개발했다.

ATI의 9500 이상 그래픽칩을 장착한 제품은 8층 기판 이상의 PCB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업체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느껴 현재까지 ATI의 위탁 생산공장에서만 생산돼 전세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유니텍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옵티머스 9700 프로'를 이달부터 양산해 2월 중순 시장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VIVO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유니텍전자의 백승혁 사장은 "ATI의 9500, 9700급 그래픽카드 제품은 ATI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디자인과 가격대를 유지했다"며 "하지만 세계 유수의 그래픽카드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9700급 고급형 그래픽카드를 자체 생산하게 돼 기술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판매확대의 기회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IP텔레포티 · IP콘택트센터 사업 시작

인성정보

네트워크통합(NI) 업체인 인성정보(대표 원종윤 <http://www.insunginfo.co.kr>)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IP텔레포니(IPT)와 IP콘택트센터(IPCC) 사업에 나선다.

인성정보는 인터넷프로토콜(IP) 네트워크 기반에서 전화와 네트워크 회선을 단일화함으로써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환경을 제공하는 시스코시스템스의 IP텔레포니와 IP콘택트센터 솔루션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회사 김두현 상무는 "인성정보는 단순히 시스코의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부가가치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첫 청소통면도기 시판

조아스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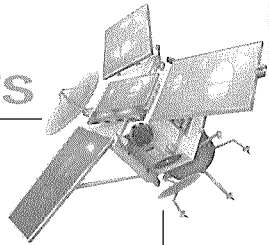


조아스전자(대표 오태준 <http://www.joas-elec.com>)는 3년간의 연구끝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청소통면도기(모델명 SR-245)를 출시했다.

이 신제품은 절삭된 수염이 회전날의 원심력에 의해 청소통에 모아지기 때문에 면도후 쉽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청소통면도기는 특히 큰날 3개와 주변날 6개 등 모두 9개의 날을 장착해 기존의 회전식 제품과 차별화된 절삭력을 발휘토록 설계됐다. 또 직경 40mm인 최대 크기의 날망을 채택해 면도시간을 줄였고 면도시 피부에 대한 밀착감을 높여주기 위해 손잡이에 고무레버를 장착시켰다.

이제복 조아스전자 부장은 "필립스 등 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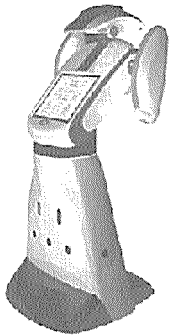
제품과의 경쟁을 위해 내년 1월 출시예정인 4날 방수용 면도기를 '헤렉스(HEREX)' 라는 신규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정용 애견드라이어, 이발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1월께 출시하면서 애견용품 사업에도 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도 제공한다.

조이메카는 '로사'가 내방객 방문시 안내업무를 하거나 기업전시회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도우미 역할, 빌딩 내부의 사각지역 감시 등에 응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계 실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벤트용 안내로봇 개발

조이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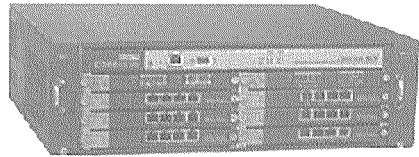
퍼스널로봇업체 조이메카(대표 이정철 <http://www.joymecha.co.kr>)는 각종 행사에서 도우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이벤트로봇 '로사'의 프로토타이프를 선보였다.

이 로봇은 건물내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음성 인식과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주위 사람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안내와 건강정보 진단, 방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안내용 키오스크와 유사한 웹정보 검색기능을 갖춰 병원과 공공장소 등에 배치될 경우

기업용 메트로이더넷 장비 개발

코어세스



코어세스(대표 하정율)는 고성능 기업용 메트로이더넷스위치 '코어세스5424'를 개발했다.

코어세스5424는 128 급 다기능 L3스위치로 트래픽 관리, QoS(Quality of Service), 멀티캐스트 라우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이 장비는 통신사업자의 게임방용 메트로이더넷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기존 메트로이더넷 장비와 달리 기업용 메트로이더넷서비스를 겨냥해 개발된 제품이어서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코어세스는 이 제품을 통해 올해 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용 메트로이더넷 스위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하정율 사장은 "기업용 메트로이더넷 환경을

생각해볼 때 안정성과 기능, 운용성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개념의 장비개발이 필요한 때"라며 "통신사업자들이 모듈화된 설계구조를 지니고 있는 코어세스5424를 이용해 다양한 기업용 메트로이더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친화 모니터 및 TV 개발

토비스

토비스(대표 김용범 <http://www.tovism.com>)가 TV 케이스를 대리석으로 고급화한 '대리석 LCD TV'와 '원목 액자형 모니터'를 개발했다.

대리석 LCD TV는 특히 고객 요구에 따라 기념문구를 새길 수 있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급 질감과 내구성·내열·난연 등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토비스가 이번에 개발한 원목 액자형 모니터는 15인치 LCD모니터 외양을 원목으로 둘러싼 제품으로 목재의 다양한 색상과 자연미를 살린 제품이다. 모니터는 250칸델라와 300대 1의 명암비 패널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게임용 모니터를 비롯, CCTV용·의료용 등 산업용 모니터 등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최근에는 PDP모니터 등 첨단 디지털 영상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해 왔으며 앞으로 국내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레이저 건식 세정장비 개발

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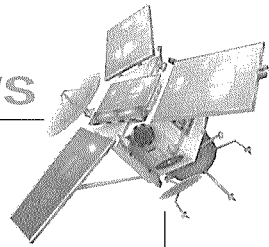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한택(대표 한종훈 <http://www.hantech.co.kr>)이 차세대 세정장비인 레이저 건식 세정장비를 개발했다.

2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2년여의 개발기간을 통해 개발한 레이저 건식 세정장비는 종전의 습식세정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습식세정 공정에서 많은 양의 물과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발생됐던 환경오염, 고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자의 경박단소화에 따른 청결도 향상 요구, 새로운 재료와 공정의 개발에 따른 세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했다.

장비 적용분야는 화학기계적연마(CMP) 공정 후 슬러리 제거, 유기기 파티클 및 각종 잔유물 제거, RIE·HDI 공정 후 경화된 감광막 및 폴리머 제거, 웨이퍼 및 금속박막 표면의 거친 정도(roughness) 개선 등이다. 이 장비는 크게 세정원인 레이저 빔을 제공하는 레이저 발생부, 렌즈와 반사경을 이용해 빔을 전달하는 빔 전달부, 세정공정이 이뤄지는 세정 프로세스부, 200mm 웨이퍼 이송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300mm 웨이퍼 대처능력은 추후 보강될 예정이다.

한종훈 사장은 "레이저 건식 세정장비는 성능 면에서 종전 습식 세정장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소자업체가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반



도체 생산환경 구성에도 부합된다”며 “수년 안에 세정장비시장에서 주력제품으로 부상할 예정이어서 시장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52Mbps DMT VDSL장비 개발

현대네트웍스

현대네트웍스(대표 이양환 <http://www.speedxess.net>)는 52M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DMT(Discrete Multi-Tone) 방식의 VDSL장비를 개발, 공급에 들어간다.

50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구현하는 VDSL 장비는 최근 코어세스에 이어 en 번째로 개발된 것이지만 QAM방식 칩셋이 아닌 DMT방식의 칩셋을 채용한 장비가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개발된 DMT방식의 VDSL장비는 QAM방식과 비교할 때 데이터 전송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잡음도 적어 하향 52Mbps, 상향 26Mbps의 고품질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ADSL과의 호환성이 뛰어나 기존 ADSL DSLAM에서 가입자 카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VDSL서비스가 가능하다.

현대네트웍스 이양환 사장은 “이번 VDSL장비의 개발로 VOD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집중형 인터넷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제품 개발을 계기로 VDSL시장 공

POF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히로세코리아

히로세코리아(대표 김연혁 <http://www.hirose.co.kr>)는 최근 KT 통신망연구소와 공동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홈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2종의 ‘플라스틱 광섬유 네트워크 시스템(POF Network System)’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파장대역이 650nm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삽입 손실이 0.92dB에 불과하며, 155Mbps 속도로 100m까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 850nm 파장 대역의 시스템은 0.55dB의 삽입손실로 1.25의 속도로 데이터를 500m까지 전송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플라스틱 광섬유를 적용해 고속 전송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특히 플라스틱 광섬유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유리 광섬유의 접속문제에 따른 막대한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회사 박경서 부장은 “이 제품은 설치작업이 용이해 앞으로 홈네트워크를 비롯한 자동차·항공기·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광커넥터 6종, 광모듈 6종, 4종의 스위치 허브, 아웃렛 미디어 컨버터 등으로 구성됐다.